

허석 순천시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위촉



허석(왼쪽) 순천시장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허 시장은 앞으로 3년간 자연과학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허 시장과 함께 위원회 제주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국가 위원회로,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 촉진과 교육·과학·문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해 1954년 설립됐다. 허 시장은 앞으로 3년간 세계적인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 강화, 세계유산의 보호 증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순천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천연 고찰 선암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또 생태계 보고인 순천만습지와 전통의 삶이 살아있는 낙안읍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허 시장은 "유네스코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순천시 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지구시민운동연합 광주지부, 생명나눔 헌혈봉사



지구시민운동연합 광주지부(대표 이동미) 회원 30여명이 21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광주혈액원으로부터 헌혈바스를 지원받아 '지구시민들의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헌혈자가 감소함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으며, 이날 모인 혈액은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많은 지역 병원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이동미 대표는 "코로나19로 혈액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에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지역과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혈봉사에 꾸준히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구시민운동연합 광주지부는 내고장 환경지킴이 활동을 시작으로 정화활동과 청소년 지구 시민교육, 소외계층 나눔사업을 비롯해 지구환경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조선대 일자리센터, 재학생 대상 '진로설계 call-back서비스'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취업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진로설계 call-back서비스'를 시작했다. 진로설계 call-back서비스는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자체 제작한 진로설계 워크북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취업준비전략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전화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선대 제공>

“아홉살에 겪은 5·18 기억 지금도 생생 타국의 억압 받는 이들에 용기주고 싶어”

5·18 소재 동화 '제니의 다락방' 출간 故 헌틀리 목사 딸 제니퍼 헌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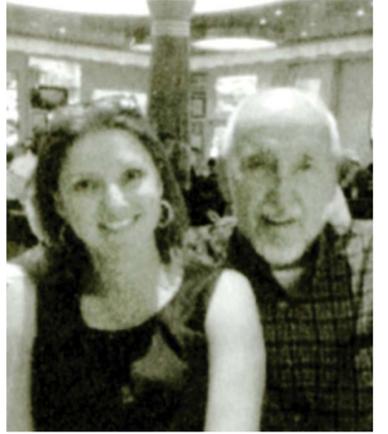
선교사 부모 아래 양림동 출생...헌틀리 목사, 시민군 숨겨주고 치료 어린 제니퍼의 기억과 심경 이화연 작가가 동화로 각색 쉽게 풀어내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9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그린 동화가 출간됐다. 고(故) 찰스 베츠 헌틀리(한국명 허철선) 목사의 막내딸 제니퍼 헌틀리(49)가 펴낸 '제니의 다락방'(하늘마음)이다. 제니퍼는 1971년 부모가 선교사로 양림동에 거주할 때 태어났으며, 1980년 당시 만 9세 나이로 5·18광주민중화운동을 목격했다. 아버지인 헌틀리 목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양림동 광주기독병원에서 일하며 부상당한 시민들을 숨겨주고, 사진을 찍어 광주의 진실을 알렸던 인물이다. 그가 기록한 참상은 사택 지하 차고에서 현상돼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등을 통해 세계로 전해졌다. 책은 제니퍼가 겪었던 당시의 기억과 심경을 동화 형식으로 읽기 쉽게 풀어냈다. 책은 1980년 5월, 언니를 보러 대전을 다녀 온 제니가 사뭇 달라진 광주의 풍경을 보며 시작한다. 며칠째 광주 시내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친구에게서 '군인들이 시내에서 학생들에게 눈물가스를 쏘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제니에게는 그저 북과 노랫소리가 가득한 퍼레이드인 것만 같았다. 제니에게는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



곧이어 군인이 학생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제니의 부모님은 학생들을 다락방에 숨겼다. 제니는 이따금씩 학생들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도, 다락에 있는 새끼 고양이들 중 막내 고양이 '오웰' 이가 물과 우유를 먹지 않아 걱정이었다.

어느 날 제니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군인들이 제니네 집을 수색하러 왔다. 제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군인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하지만 그들이 다녔던 후막내 고양이는 죽은 채 발견됐다. 이제 시민들이 군인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아빠 헌틀리 목사는 병원 내 부상당한 사람들, 시내에서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다. 끔찍한 사진들을 찍는 아빠가 제니는 낯설고 걱정스러웠다. 26일 밤, 한동안 조용했던 총성이 다시 쏟아졌고, 20여명의 사람들이 제니의 지하 방에 불도 켜지 못한 채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시각, 도청에서는 죽음을 각오한 시민군의 마지막 전투가 펼쳐졌다. 책은 제니퍼의 회고를 이화연 작가가 동화로 각



2014년 제니퍼 씨와 아버지 헌틀리 목사 생전 모습.

색해 만들어졌다. 이 작가는 광주 출신으로, 미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던 중 제니퍼를 만나 5·18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계기가 돼 동화 출간을 마음먹었다고 전해진다. 삽화는 김정혁 작가가 맡았다. 제니퍼는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노숙인 등을 돕는 비영리 기구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작가의 딸'을 통해 "1980년 광주의 오웰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며 "비극이면서도 압제와 차별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미국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 4주간 매주 월요일 동화 구연



바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20일(현지시간)부터 4주간 매주 월요일 동화구연을 하기로 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어린이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하고 가족에게 휴식을 주자는 취지다. 미셸 오바마는 성명에서 "내가 어렸을 때 소리 내서 책 읽기를 좋아했다"며 "부모가 됐을 때는 내 아이들과,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는 모든 어린이와 책 읽기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셸 오바마는 '그루팔로'(20일), '너의 책에 용이 있다'(27일), '미스 메이플의 씨앗'(5월4일), '매우 배고픈 애벌레'(5월11일) 등을 차례로 읽을 예정이다. 구연 영상은 PBS기즈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팽귄 랜덤 하우스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주 월요일 생중계 된다. 앞서 미셸 오바마는 2018년 11월 출간한 자서전 '비커밍'(Becoming)에서 자신의 인생에 미친 책의 영향력에 대해 적기도 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어떻게 시민을 향해 발포할 수 있나”

5·18 당시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평전 발간

“시민의 공복인 경찰이 어떻게 시민을 향해 발포할 수 있었습니까?”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1928-1988) 치안감의 시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바라본 책이 출간된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집필자 이재의씨가 쓴 '안병하 평전(정한책방)'이다. 책에는 전남도 경찰국장으로서 광주·전남 경찰을 지휘했던 안 치안감이 겪었던 광주 이야기가 실려 있다. 또 안 치안감의 회고를 바탕으로 '전두환 회고록'과 당시 군경 기록물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밝혀낸다. 이밖에 1980년 5월21일 경찰 철수 과정, 강경진압으로 일관했던 계엄군과 경찰 이견 차이 등 그간 조명받지 못했던 사실들도 풀어낸다. 책은 따르면 그는 당시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과의 논의에 계엄 상황에서도 약간 햇볕시위를 허가하는 등 시위대에 우호적이었다. 경찰들이 시위대를 에스코트하며 평화로운 시위를 이끌도록 한 것도 그였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후 경찰도 '강경 진압' 지시를 받았으나, 안 치안감은 은 오히려 "희생자 없도록 최대한 노력", "화환탄을 사용치 말고 부상사체가 없도록 적극 유의", "주모자만 연행, 도주하는 학생은 추적하지 말 것" 등 지시를 내렸다. 그는 5월 19일 '시위대의 무기 탈취 방지'를 핑계로 경찰이 보유 총기와 실탄을 31사단에 소산(疏散)시키기도 했다. 안 치안감은 5월 25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강경 진압 요구에 "경찰이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광주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 일로 26일 직위해제된 안 치안감은 "지시에 불복했다"며 보안사령부로부터 연행돼 고문을 당했다. 안 치안감은 8년 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1988년 10월 10일 병을 달리했다. 책은 이달말에 출시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최해규-최은씨의 차남 종욱군, 이경(대림종합건설 회장)·국충씨의 차녀 유현양=25일(토) 낮 12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윤봉근(전 광주시의회 의장)·최영은(교사)씨 장남 자민군, 배동오(건설회사 대표)·박명숙씨의 삼녀 서영양=25일(토) 오후 5시 30분 광산구 수안동 드메르웨딩홀 2층.

알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 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기정양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탁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손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모집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웃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년준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심폐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

- 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김동남씨 별세, 김병용·병철·영미·혜란·용미씨 부친상, 고재선·김디혜씨 시부상, 이용웅·김환준씨 방부상=발인 23일(목) 오전 08시 30분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